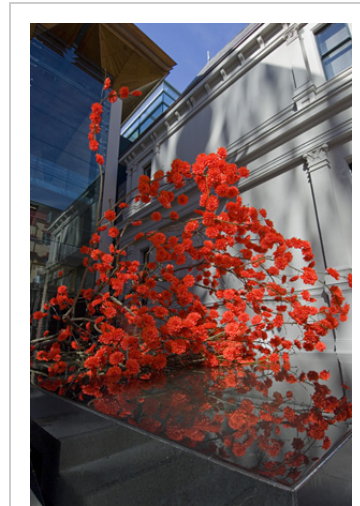


휴전 60년을 되새기며... 현대미술전 서울·런던서 잇따라

신세미기자 ssemi@munhwa.com

올해 한국전쟁 휴전 60주년을 맞아 ‘정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현대미술전이 휴전일 27일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잇따라 펼쳐진다. 한국전쟁기념재단은 OCI미술관과 공동으로 특별기획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전을 5~28일까지 연다. 멀리 영국에선 한국전에 참전한 영국용사의 삶을 다룬 작품전이 8~20일 런던 아시아하우스에서 진행된다.

◆ 서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전 =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 60년을 현대미술을 통해 되새겨보는 기획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분단의 현실, 통일과 평화에의 염원이 예술품으로 재조명된다. 작가 15명은 ‘망각의 틈’ ‘부유하는 그리움’ ‘다시 시작하는 노래’의 세 주제로 지난 60년 세월을 풀어낸다. 전쟁을 경험한 권순철, 손장순, 서용선 씨 등은 처절한 전쟁, 남북 분단의 고통과 그리움 등을 회화로 표출한다. 남과 북으로 생이별한 뒤 각기 그림을 그렸던 김기창·기만 형제화백, 정중여·혜지 부녀의 작품이 동시에 선보인다.



▲ 전쟁 희생자를 상징하는 750개 붉은 꽃을 나무에 설치한 최정화의 ‘윈터 가든’.

이밖에 김춘수 씨는 청색 추상화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김혜련 씨는 산 풍경에 전쟁 그 이후를 담아낸다. 영상작가 박찬경 씨는 남한 서울종합촬영소의 공동경비구역 JSA세트와 북한 조선영화촬영소의 서울거리를 대비시켜 보여준다. 군복차림의 두 인물을 통해 세대간의 간극을 담아낸 조습 씨의 사진, 복무했던 부대를 다시 찾아가 촬영한 백승우 씨 사진도 눈길을 끈다.

◆ 런던의 ‘어느 노병의 이야기’전 = 한국전에 파병됐던 영국용사를 재조명한다. 작업에 앞서 참전용사들을 면담한 작가들은 최정화, 이용백, 이이남, 백승아 씨 등 한국작가 위주로 14명이다. 기획은 재영국 큐레이터 김승민 씨. 한국전 당시 영국 글로스터셔연대 제1대대는 중공군과 맞선 설마리전투를 통해 용맹을 떨쳤고, 최근 글로스터셔시에 ‘6·25전쟁 기념관’ 설립이 추진 중이다.

윤석남 씨의 750개 나무 조각, 최정화 씨의 750개 플라스틱 꽃 및 750개의 대리석관 같은 원지호 씨의 작품은 설마리전투서 희생된 영국용사 750명을 상징한다. 현란한 꽃으로 위장한 군인의 움직임을 담은 이용백 씨의 ‘엔젤 솔저’,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김태은 씨의 영상, 백령도에서 작업한 영국 출신 사운드아티스트 월 볼턴의 작품도 나온다. 이경모, 임응식, 이명동, 김녕만, 김연수 씨 등의 비무장지대(DMZ) 사진도 전시된다. 영국 전시와 참전용사 인터뷰 등을 담은 영상은 오는 27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개막하는 ‘평화미술 프로젝트’에서 선보인다.

신세미 기자 ssemi@munhwa.com